

민은기의 클래식 비망록

열일한 당신 떠나라, 작곡가 로시니 37세에 펜 놓은 이유

민은기
서울대 음악학과 교수



‘탄크레디’ ‘세비아의 이발사’ 히트 후
1820년대 베토벤급 명성 얻었지만
대작 ‘기욤 텔’ 만든 뒤 돌연 은퇴
“약간의 재주가 전부” 겸손한 태도
요리 몰두하고 책 펴내며 제2 인생
살롱 열어 문화계 셀럽들과 교류

누구나 언젠가는 은퇴를 한다. 예술가도 마찬가지다. 가장 좋은 것은 인기의 절정에서 박수를 받으며 떠나는 것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성공은 없으니까. 그러나 어디에나 예외는 있는 법. 유독 작곡가들에게는 은퇴가 없다. 육체는 쇠약해져도 창작욕은 줄어들지 않는 모양이다. 그래서 작곡가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펜을 놓지 않는다. 유독 이들에게 미완성 작품이나 유작이 많은 이유이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조아키노 로시니가 37세의 나이를 끝으로 오페라 작곡을 그만둔 것은 당시 모든 사람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는 여전히 너무 젊었고 그가 발표하는 작품마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 연금 덕에 안정적인 삶
음악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로시니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특출난 재능을 보였으며, 12세에 이미 6개의 현악 4중주를 작곡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18세에 베네치아에서 그의 첫 오페라 ‘결혼 보증서’를 세상에 선보였다. 단막 짜리 코믹 익살극인 이 오페라로 베네치아의 산 모이제 극장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한 이후, 그는 연속해서 코믹 오페라들을 성공시키면서 단숨에 베네치아를 넘어 볼로냐, 페라라, 로마 그리고 밀라노의 라 스칼라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그가 20세가 되었을 때 라 스칼라에서 상연된 ‘시금석’은 51회나 연속 상연되는 기록까지 세웠다.

그 이듬해에 로시니는 처음으로 진지한 장르인 오페라 세리아에 도전했고 비극적인 결말을 갖는 ‘탄크레디’를 만들어 보란 듯이 성공시켰다. 탄탄하고 진지한 작품 속에서도 그의 독창성은 유감없이 빛났다. 그는 희극과 비극의 특징들을 하나의 작품 속에 완벽하게 녹여냄으로써 오페라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하고 흥미로운 인물들을 만들어 냈다. 그가 만든 인물들은 누구나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캐릭터라 더욱 호소력이 있었다. 로시니의 명성은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 유럽 대륙과 미국에까지 퍼져 나갔으며, 불과 23살의 나이에 그는 나폴리의 산 카를로 극장의 음악 감독이 되었다.

운도 실력이라고 했던가. 그는 운도 좋았다. 로시니의 최고 인기 오페라인 ‘세비아의 이발사’는 초연할 당시만 해도 곧 사장될 운명에 놓였었다. 이 오페라는 프랑스 극작가 피에르 보마르셰의 3부작 희곡을 바탕으로 하는데, 모차르트가 희곡의 첫 번째 부분을 사용해서 ‘피가로의 결혼’을 작곡했을 뿐 아니라, 나폴레옹이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 파시엘로가 두 번째 부분을 기초로 만든 ‘세비아의 이발사’가 이미 존재했기 때문이다. 결국 로시니의 오페라는 주인공의 이름인 ‘알마비바’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올려졌고, 설상가상으로 파시엘로 추종자들의 야유로 초연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공교롭게 파시엘로가 바로 사랑하는 바람에 로시니 오페라가 ‘세비아의 이발사’라는 제목으로 다시 무대에 올라갈 수 있었고, 그 이후 ‘세비아의 이발사’는 오히려 로시니의 것이 되었다.

‘세비아의 이발사’는 가난한 군인으로 변장한 백작, 마을의 이발사, 돈 많고 아름다운 아가씨, 그의 못된 후견인 등이 등장해 좌충우돌하는 상황을 다룬 오페라 부파이다. 로시니는 음악에 활기찬 리듬을 도입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이끔면서 떠들썩하고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을 유쾌한 희극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벨칸토 전통을 절묘하게 결합함으로써 광대극은 매력적인 오페라로 승화된다. 여주인공 로시니가 부르는 ‘방금 들린 그대 음성’은 서정적인 벨칸토 선율, 고도의 성악적 기교, 캐릭터의 복합적인 표현을 모두 담아낸 최고의 아리아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노래 속에 익살스러운 위트를 이처럼 능숙하게 섞어내는 솜씨는 그야말로 천재적이다. 그의 전성기였던 1820년대 유럽인들에게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가 누구냐고 물었다면 대부분 베토벤이 아니라 로시니라고 답했을 것이다. 당시 50이 넘었던 베토벤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22년 로시니가 자기가 사는 빈을 처

음으로 방문했을 때, 군중들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로시니 열병’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빈과 런던에서 화려한 시즌을 보낸 이후 로시니는 파리에 정착했고, 처음에는 이탈리아어 코믹 오페라를 쓰고 그 다음에는 프랑스어 코믹 오페라를 쓰더니, 급기야 최초의 프랑스어로 된 진지한 오페라 ‘기욤 텔’을 내놓아 세상을 다시 놀라게 했다. 일부 가수들이 연주를 피할 정도로 어려운 데다 상연 시간만 3시간 45분이나 되는 대작이었다. 이 새로운 오페라는 엄청난 인기를 얻어 그의 생전에만 500회가 넘게 상연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욤 텔’이 그의 마지막 오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저작권이 없던 시절 자신의 작품을 무대에 올려야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작곡가들에게 죽기 전까지 은퇴란 없었으니까.

말년에 레종노르 기사 훈장 받아
그러나 그는 정말로 펜을 놓았고 남은 인생을 여한 없이 즐기기 시작했다. 이전에 벌여놓은 돈도 많았고 루이 18세 치하의 프랑스 정부와 후한 연금 계약을 맺고 파리로 온 로시니는 먹고살 걱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젊어서 명예와 부를 다 얻은 로시니는 그 후 40년 여생을 맘껏 즐기며 살았다. 유명한 식도락가였던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저택에 유명 셰프들을 불러 고급스러운 음식과 새로운 조리법을 즐겼다. 연애에도 열심이어서 파리 최고의 모델이

었던 올림프 펠리시에와 연애를 즐기다가 별거 중인 부인이 사망하자 그녀와 결혼도 했다.

몇 년간 이탈리아로 가서 볼로냐 음악원의 교장으로 지내는 동안 로시니가 앙극성 정동장애했었으며 임질에 걸렸고 이후 그 후유증으로 고생했다는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다시 파리로 돌아온 후 그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평소 좋아하던 요리 연구에 몰두하여 요리책을 출판하는 등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유쾌한 만년을 보냈다. 로시니는 파리 중심지에 아파트를, 그리고 파리 외곽에 고풍스러운 빌라를 갖고 있었는데, 여름에는 빌라에서 겨울에는 파리의 아파트에서 ‘토요일 저녁’이라는 살롱을 10년 이상 개최했다.

프랑스를 넘어 해외에서도 유명했던 그의 살롱에는 당대 최고 성악가들은 물론 사拉萨타와 요아힘 같은 비루투오소 바이올리니스트가 단골로 초청되었을 뿐 아니라 구노, 리스트, 루빈스타인, 마이어베어, 베르디가 초대되어 연주를 했다. 로시니는 자신을 겸허하게 4급 피아니스트라고 말하곤 했으나 살롱에서 직접 연주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그의 연주 실력은 실제로는 유명 피아니스트들조차 때로 시킬 정도로 훌륭했다고 한다. 로시니는 이 살롱을 위해서 필요한 가곡, 피아노 독주곡, 실내악 등의 소품들을 직접 작곡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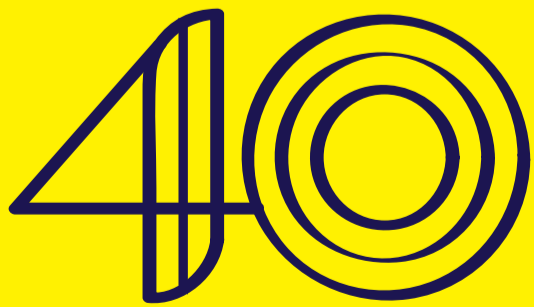
그에게 은퇴 후의 인생은 축복이었고 그래서 여생이 즐거울수록 더욱 겸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살롱에서 연주하기 위해 150개도 넘는 곡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들을 스스로 ‘노년의 죄’라고 낮추어 불렀다. 1864년에 작곡한 ‘작은 장엄미사’에 그가 직접 적어 넣은 기도는 더욱 겸손하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이 보잘것없는 작은 미사를 끝냈습니다. 제가 쓴 이것은 성스러운 음악인가요, 아니면 저주받은 음악인가요. 당신도 잘 아시듯 저는 광대 오페라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약간의 재주, 약간의 진심 그제 저의 전부였습니다. 부디 저를 축복해주시고, 제게 천국을 내리소서.’ 은퇴 이후 수십 년간 이렇다 할 업적이 없었지만 말년의 로시니는 나폴레옹 3세로부터 프랑스 최고 영예인 레종노르 기사 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1868년 짧은 투병 기간 이후 76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했는데, 삼상위일체 교회에서 열린 장례식에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그의 빠른 은퇴는 로시니의 음악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은퇴하지 않았다면 이전보다 더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 내지 않았을까. 은퇴 후에도 40년을 더 살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좋아하는 요리에 전념해서 책도 썼고 새로운 여성과 결혼도 했고 문화계 셀럽들이 모이는 살롱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을 맘껏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어디 흔한가. 인생을 겸손하게 낙천적으로 살았던 로시니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으리라.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민은기 서울대학교에서 음악이론을 전공하고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5년부터 서울대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음악과 페미니즘’ ‘독재자와 음악’ ‘대중음악의 역사’ 등을 주제로 여러 권의 저서를 출판했으며 최근에는 ‘난생 처음 한번 들어보는 클래식 수업’ 시리즈를 집필 중이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